

장흥군, 수정란 이식으로 새해 첫 혈통 송아지 얻었다



장흥군은 OPU(생체 난자 흡입술)를 통해 수정란이 이식된 한우가 지난 4일 첫 혈통 송아지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OPU 수정란 이식은 고능력 암소의 난자를 채취해 우량 정액과 수정된 생식 세포를 관내 한우 농가에 이식하는 사업이다.

작년 150두 이식 송아지 76두 생산 예정 수정란 이식 수태율 50% 전국 평균 상회 관내 상주 전문 이식사 인력풀 최대 활용

장흥군은 지난해 11농가에 150두를 이식해 76두가 수태되어 전국 평균을 상회한 50%의 이식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3농가는 70%가 넘는 우수한 수태율을 보였다.

장흥군은 일찍이 2010년부터 3년간 이식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식을 한번 실패할 경우, 임신우의 공태 기간이 길어져 농가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

다. 과거 3년간 실패한 전력이 있어 수정란 이식에 대한 농가 인식 또한 좋지 않아 지난해 추진 사업에 대한 어려움도 컸다.

그러나 지난해 추진한 수정란 이식 사업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살려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와 관내 인력풀을 최대 동원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의 기술

력을 바탕으로 채취된 신선란, 거리적으로 가까운 이점, 관내 상주하는 전문 이식사(수의사, 수정사)의 노하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

OPU 체외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소는 혈통 한우로 등록·관리되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수정란 이식으로 일반 인공 수정 개량 속도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관내 한우 개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란 이식을 통해 생산된 소는 관외로 반출하지 않고, 장흥군 관내에서 계속 관리된다.

장흥군은 올해도 수정란 이식 사업을 위해 3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수정란 이식 장려를 위해 추가 예산

을 더욱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말 현장 심사를 통해 농가 선정을 마쳤으며, 농가 전문 교육 후 1월 말부터 바로 수정란 이식 사업에 착수한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수정란 이식은 단기간에 한우 개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관내 명품 한우 생산을 위해 한우 개량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문 이식사인 김점중 씨는 "수정란 채취 기술, 수정란 이식 노하우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가의 사양 관리가 최대 관건이다"며 "한우 개량을 위한 농가의 참여와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코로나 19’로 축산농가도 위기...진도군, 다양한 지원책 확대

친환경 약취 저감 시설·고병원성 AI 차단 ONE-STOP 검사 실시

진도군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적극 나선다.

8일 진도군에 따르면 명품 축산 농가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친환경 약취 저감 시설 지원 ▲가금농가 ONE-STOP 민원 처리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등을 확대 추진한다.

친환경 인증 농가 등을 대상으로 올해 1억6,000만원을 들여 친환경 약취

저감 시설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특히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입식 전과 출하 전에 실시하는 검사를 입식 7일전 신고를 하면 출하 전 검사까지 ONE-STOP으로 민원을 처리해 가금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민·관 합동으로 농장주변 소독

과 진입로 석회 살포, 장화 갈아 신고 등 농장 단위 차단 방역에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축산물도 이제는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축산물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며 "친환경 약취저감 시설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청정바다’ 완도 수산물, 수출유공자 브랜드 대전서 ‘대상·은상’ 수상 쾌거

대상-(주)해청정 다시마 국수·은상-(주)완도사랑S&F 전복 볶음밥

완도군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물유통협회가 개최한 '2020 수산물 수출 유공자·브랜드' 대전에서 완도군 소재 수출기업인 (주)해청정과 (주)완도사랑S&F에서 각각 대상과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된 '수산물 수출브랜드 대전'은 자체 전문가단의 심사를 거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우수한 상품을 선정하고 있다.

대상을 수상한 (주)해청정(대표 이창숙)의 '해초미인'은 다시마 국수로 해외에서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조류를 활용한 저칼로리(1인분/180g/19kcal)제품이다.

완도산 다시마를 활용한 이 제품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위기 속에서 지난해 9월, 완도군 수산 HMR 화상 수출상담회에 참가, 말레이시아 라왕에 제품을 수출하며 첫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부산국제수산물엑스포 수출상담회를 통해 독일 수출 길에 오르는 등 다시마 국수는 건강식을 선호하는 전 세계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은상을 수상한 (주)완도사랑S&F(대표 소성범)은 '바다는 웰빙이다'는 브랜드처럼 청정바다에서 생산한 수산물로 만든 전복 가공 식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전에서 완도산 참전복이 들어간 전복 볶음밥 3종(해물, 김치, 툇)은 가성비와 탁월한 가정 간편식으로 평가단의 주목을 받았다.

전복 볶음밥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바이어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수입 의사를 밝힌 후 현재까지 원활하게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

완도군은 "올해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업체와 어업인들의 노력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해남군,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실시

전남 유일 선정...오늘부터 접수

해남군이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에서는 해남군이 유일하게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10억 6,1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오는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전자 바우처카드를 통해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2인 가구 5만 7,000원, 3인 가구 6만 9,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사용은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협 하나마트에서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교통약자 및 거동불편자 등을 포함한 꾸러미 신청 희망자는 바우처 카드 신청시 꾸러미 배달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첫 시행인 이번달은 15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매달 1일 총전액은 당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므로 반드시 당월에 사용해야 한다.

해남군은 취약계층의 건강 먹거리 보장은 물론 푸드플랜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신선함이 가득한 강진 표고버섯, 지금 만나보세요”

설 명절 앞두고 생표고·건표고·표고버섯차 등 다양한 제품 선보여

민족대명절인 설을 한 달 가량 앞두고 강진군 강진을 부춘리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박진천(55세) 청자골 강진 표고농장 대표는 전국에서 물려드는 예약 물량을 맞추기 위해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에 여념이 없다.

표고버섯은 맛과 향이 좋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 암세포 증식을 저해시키는 렌티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또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추고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 시키는 다

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선물용으로 단연 인기를 끌고 있다.

강진군에서는 생표고버섯 뿐만 아니라, 건표고, 표고가루, 표고버섯차 등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명실상부 강진군 대표 농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년 전 강진으로 귀농해 표고버섯 재배를 시작한 박진천 대표는 버섯 유통망 및 고객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강진군이 직영하는 농특



산물직거래지원센터 고객 마케팅과 강진군에서 추진한 택배비 지원, 포장재 제작, 생산기반 구축 등의 맞춤형 사업을 통해 빠른 정착을 할 수 있었다.

강진=김영일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